

음성평가 시 ADSV (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and Voice)의 유용성

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이 담 희 · 최 승 호

목적

음성장애 환자의 음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 방법인 MDVP는 다양한 음성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모음연장발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. ADSV는 연결발화 시, 음성을 음향학적 방법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상태를 대표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ADSV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.

방법

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음성변화로 내원한 환자 중 음성 평가 상 MDVP와 GRBAS 간에 차이가 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자들은 총 25예(남:여=16:9)로 평균 51세였다. 대상자들은 청지각적 평가인 GRBAS와 음향학적 평가인 MDVP를 시행하였고, ADSV로 연결발화를 분석하였다. GRBAS의 전반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G 척도와 ADSV의 파라미터(CPP, CPP SD, L/H ratio, L/H ratio SD) MDVP의 파라미터(jitt, shim, NHR)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.

결과

GRBAS의 G 척도와 MDVP의 jitter($r=0.06$, $p=0.70$), shimmer($r=0.18$, $p=0.27$), NHR ($r=0.059$, $p=0.72$)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, ADSV의 파라미터 중 CPP ($r=-0.37$, $p=0.02^*$), CPP SD ($r=-0.35$, $p=0.03^*$)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. 반면, L/H ratio ($r=-0.22$, $p=0.17$), L/H ratio SD ($r=-0.24$, $p=0.14$)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.

결론

청지각적 평가인 GRBAS의 G 척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파라미터는 ADSV의 CPP와 CPP SD였다. 모음 연장발성과 연결발화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경우 ADSV를 통한 평가를 시행한다면 더욱 신뢰로운 평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.

Keyword: 청지각적 평가 MDVP; ADSV; Perceptual Analysis; MDVP; ADSV